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홍익대통령 정도령과 불사영생의 통일대한민국’ 강연회 성황

“우리 모두 홍익대통령 정도령이 되어야 한다”

본부재단 전도부에서 주최한 강연회를 전 성도가 합심하여 성공리에 마쳤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린다는 예보를 하였지만 구세주께서 성공적인 강연회를 만들어주시려는지 아침 일찍부터 비가 멈추었다. 모처럼 연휴를 맞아 놀러가려는 계획들을 일찌감치 무산시킨 구세주의 섭리가 놀라울 따름이었다. 비 갠 뒤에는 환하게 태양까지 비추니 그렇게 날씨가 좋을 수 없었다.

점심시간 때가 되니 하나 둘 강연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각 지역별 탑골공원 전도 때 전도지를 받은 사람, 승리재단 식구들을 통해 참석하신 사람, 승리신문 광고를 보고 참석한 사람, 역곡역에서 즉석 인도된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김중만 승사는 3시 정각에 “새로운 생각을 담으면 새 그릇이 되고, 헌 생각을 담고 있으면 헌 그릇이 된다. 오늘 강사님의 새로운 생각을 듬뿍 받아서 새 그릇이 되자”라며 강연회의 시작을 알렸다.



강사 안병천 승사



강연회 때 내린 이슬성신 / 김정순 승사 촬영

이번 강연회의 강사는 조희성 정도령님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안병천 승사였다. 안병천 승사는 강연회의 서무를 자신이 대학시절 운동권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경험을 머뭇머뭇 풀어 나갔다. “이 세상은 정도(正道)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회망을 잃어가는 것이다. 정도가 행해지면 절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 정도령은 정도를 행하는 분이고, 우리 모두 정도령이 되어야 이 세상이 바르게 된다”고 말하였다.

강의 요약

홍익대통령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대통령을 말한다. 다음 대통령은 홍익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인내천 사상을 단군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인내천이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겨야 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大通靈이다. 즉 대통령은 크게 통하는 분이다. 어느 곳에서건 누구를 상대하건 모두 통하는 분이며, 그분이 바로 통일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애국가 가사를 보면 너무 내용이 멋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얼마나 멋진 내용인가. 애국가 안에 영생이 들어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영원토록 살자는 내용이다. 가슴에 무궁화 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관리가 아니요, 그 땅에 산다고 해서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진실한 영혼, 극기복례의 겸손함으로 자아실현, 인간완성을

이룬 하늘의 백성들이 격한 감동으로 애국가를 부르며 무궁화의 진실을 논할 수 있다. 지극한 기쁨으로 불사영생의 삶을 즐기고 살아야 무궁화다.

우리가 소원하는 통일은 과연 무엇일까? 통일은 완전한 하나됨이다. 태극의 세상, 상대성이 존재하는 인간세상이 아닌 무극의 절대선으로 완성을 이룬 하나님의 세상이다. 정상에 선 자만이 전체를 볼 수 있듯이 통일의 정신으로 완성된 극기승자, 구세진인 정도령만이 통일대한민국의 실상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다. 통일이란 동강난 국토의 허리를 잇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 선과 악,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남북 등의 양립에 의한 대립과 갈등에서 생기는 회노애락에오욕의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절대생명, 절대행복, 절대기쁨으로 정신통일, 마음통일을 이룬 선한 무리인 신산(神山)들의 세상이다.

이번 강연회 주제는 ‘홍익대통령 정도령과 불사영생의 통일대한민국’이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한 강연 주제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강사의 뜨거운 열정과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에 청중들은 압도되어 이내 박수를 쏟아냈다. 정도령을 증거하는 강연이 예년과는 사뭇 달라 여러동질한 신도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은 강연이라고 하였다. 본부재단 윤봉수 회장은 이번 강연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기뻐하며 계속 강연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단한 성과다. 이 여세를 몰아 내년에도 강연회는 계속할 것이다. 강사는 돌아가면서 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강사가 되든지 최선을 다해서 강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강음, 지회장: 정은경) 2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3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구역 1등: 44구역(구역장: 이수영) 2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3등: 6구역

- *개인 1등: 김정순 승사 2등: 이수영 권사 3등: 고선희 권사*

3지역 1등 재탈환



3지역 정은경 지회장이 1등상을 받고 있다

한 시상식이 있었다.

3지역이 8월에 놓친 지역 1등을 다시 탈환하였고 4지역이 2등, 5지역이 3등을 차지하며 다시 3,4,5지역이 나란히 3강 구도를 형성하였다. 개인성적은 김정순 승사가 1등, 이수영 권사가 2등, 고선희 권사가 3등을 차지하였다. 지난달 끝에서 이번 달에 지역 3등을 차지하며 다시 3강 구도로 진입한 5지역이 지역3등, 구역1.2등, 개인 2.3등을 차지하며 5개의 상을 휩쓸어 현재 5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윤봉수 회장은 “개인 1등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개인적으로 현금도 그만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새식구를 21일 채우도록 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다. 어제 있었던 강연회에 55명의 외부인사가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정말

10월 4일 화요일, 본부재단의 2016년 9월 활동에 대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92)
“인류는 한 피요 한 몸이다”

인류는 한 피요 한 몸이다. 그러나 지금은 분열된 채 마귀 욕에 갇혀 있다. 전 인류는 한 몸이요, 한 피요, 한 조상의 후예인데도 한 몸처럼 여기지 않는 것은 정신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있는 것이다. 이긴자의 영이 인류의 영과 더불어 우주를 휩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긴자의 영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것 같으나 인류 전체가 이긴자를 따라오면서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의 말을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구도의 길

허위사실 닦아내기

지금 우리 승리재단이 처한 현실은 마치 조희성 구세주께서 전도관 시절 처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조희성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귀새끼가 되어 모진 핍박과 천대멸시를 받으셨다. 우리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이비종교 폭력종교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이긴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승리재단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제단’이 되는 것이다.

구세주께서 이 역사를 하신 지 36년이 된 지금쯤은 자신 따로 승리제단 따로 생각하는 식구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보광 직전에 나온 식구라도 엄마의 도유(道遊, 도의 뜻을 최소한 12년 이상은 먹었을 것이니 말이다. 수십 년을 나왔어도 아직 내가 곧 승리제단이고 승리제단이 곧 자신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구세주의 뜻을 전혀 모르는 철부지 바보일 것이다.

내가 곧 승리제단이다

과거 전도관을 다닐 때 마귀라고 핍박을 받으면서 지나가는 신앙의 형제가 웃어 가래침을 뱉어도 조희성님은 아무 말 없이 닦아내셨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뱉은 허위 사실들을 아무 말 없이 닦아내야 한다. 계속 닦고 닦다 보면 그들로부터 어느 뎡가는 인정이 되는 승리제단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닦고 닦는 구도자가 되자.*

연고없는 핍박과 멸시를 이기자

그런데 구세주 조희성님은 전도관 신앙의 형제들이 마귀새끼라고 손가락질하고 가래침을 뱉고 구타를 할 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그 핍박과 멸시를 연단으로 기필코 이겨내셨다. 사람들이 마귀새끼라고 할 때 조희성님은 “맞습니다. 나는 마귀 중에 괴수 마귀입니다”라고 자책을 했으며, 때리면 ‘이 마귀새끼를 더 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라며 이겨내셨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그 사람을 사랑해줬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사니 신앙의 형제들이 조희성님의 진실에 감복하여 “신앙하려면 조희성이처럼 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조희성님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앙하려면 승리제단 사람들처럼 신앙을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